***Session 8*** ***The Union of Jesus and the Father (Jn. 14:10-11)* 제 8강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연합 (요 14:10-11)**

1. Introduction 도입
   1. ***Review***: Jesus commanded the disciples not to let trouble dominate their hearts (Jn. 14:1).   
      **복습**: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에 빠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요 14:1).

1“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believe in Me…27My peace I give to you…” (Jn. 14:1, 27)  
 1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 나를 믿으라 [명령]…27…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요14:1, 27)

* 1. One of Jesus’ primary themes in John 14 is what the Father’s personality is like and how God’s people are to relate to the Father. We are called to *participate in the family dynamics of the Trinity* as described by Jesus in John 14:7-24 and applied in John 15:1-11.  
     요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다. 요 14:7-24에 묘사되고 요 5:1-11절로 적용되는 **삼위 일체 가족의 역동성에 참여하라**고 우리는 불리웠다.
     1. Jesus described His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as a Man* (14:7-11) and then applied it to His people who are to relate to the Father in a similar way by the Spirit (14:12-24).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14:7-11),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성령님을 통해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질 것이다 (14:12-24).
     2. John 14:7-11 is not a doctrinal lesson about Jesus’ deity, but about His humanity. It is not perplexing that Jesus *as God* livedin union with God—but that Jesus *as Man* on earthcould livein a deep union with the transcendent God.   
        요14: 7-11절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교리적 교훈이 아니라 그의 인성에 대한 교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셨다는 것이 당혹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초월적인 하나님과 깊은 연합 속에서 사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다.
  2. The disciples must have found it difficult to believe that a *human* could relate to the transcendent God of Israel in an intimate way. They believed Jesus was the Messiah but did not understand that He lived as the “model man”—He modeled how a person filled with the Spirit is to relate to God.   
     제자들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월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그분이 “본보기의 사람” 으로 사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길 위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본을 보여 주셨다.   
       
     7“If you had known [understood] Me, you would have known [understood] My Father also;   
     and from now on you know Him and have seen [understood] Him” …9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so how can you say, ‘Show us the Father’?” (Jn. 14:7-9)  
      7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이해했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이해했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이해했다]…9…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14:7-9)
  3. Jesus elaborated on 14:7-9 by describing His relationship with God as a Man (14:10-11). Jesus’ point was to show how He relates to the Father to introduce how God relates to humans (14:20).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심으로써 14:7-9 에서 자세히 설명하셨다(14:10-11). 예수님의 요점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보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시는 지를 소개하셨다 (14:20).

10“Do you not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The words that I speak to you I do not speak on My own authority; but the Father who dwells in Me does the works. 11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or else believe…the works themselves.” (Jn. 14:10-11)   
10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14:10-11)

* + 1. ***I am in the Father***:This includes Jesus’ thoughts, feelings, values, words, and acts as being in the Father’s heart—in the sense of bringing great delight to the Father.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생각, 감정, 가치, 말, 행동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음을 포함한다. 즉, 이것이 아버지께 큰 기쁨을 준다는 의미이다.
    2. ***Father in Me***:This includes the Father’s thoughts, feelings, values, words, and acts as being in Jesus’ heart—in the sense of bringing great delight to Jesus.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은 아버지의 생각, 느낌, 가치관, 말,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으며, 이것들이 예수님께 큰 기쁨을 준다는 의미이다.
  1. John’s gospel highlights at least 5 aspects in the union between the Father and Jesus—their ***mind***(plans), ***emotions***(feelings), ***will***(decisions, values), ***words*** (speech), and ***works***(actions).   
     Thus, they think, feel, value, speak, and act in ways that are in perfect unity with each other.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연합에 있어서 그분들의 **생각**(계획), **감정**(느낌), **의지**(결단, 가치), **말씀**(설교), **행함**(행동)의 적어도 5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분들은 서로에게 완전한 연합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가치 있게 여기고, 말하고, 행동하신다.
  2. John 14:10-11 gives the foundational relational principle in the family dynamics in the Trinity. Jesus had briefly referenced this grand reality back in John 5:19-20 and John 10:30, 38.   
     요14: 10-11절은 삼위일체 안에서 가족 역동성의 기초적인 관계 원리를 제시한다. 예수님은 요5:19-20과 요10:30, 38에서 이 거대한 실체를 간략하게 언급하셨다.
  3. In John 13-17, Jesus taught on the deep and intimate union of the three Persons in the Trinity (13:32, 34; 14:10-12, 20; 17:11, 21-23). The being of the Father and the Son is of one essence,   
     yet Their mind, heart, and will are distinct while in perfect unity.   
     요13-17장에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세 위격의 깊고 친밀한 연합에 대해 가르치셨다 (13:32, 34; 14:10-12, 20; 17:11, 21-23).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는 하나의 본질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도 구별된다.
  4. ***The Holy Trinity***: There is one God, who forever dwells in three distinct persons, who are coequal as divine persons. Each person is distinctly different from the others in their function. Each person’s work is unified, fully engaged with joy, and interdependent on the others’ work.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세 분의 구별된 위격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그분들은 신성한 위격으로써 동등 하시다. 각 위격은 기능면에서 다른 분들과 분명히 다르시다. 각 위격의 일은 통일되어 있으며, 기쁨으로 충만히 참여 하시고, 서로의 일에 상호 의존적이시다.
  5. Each person in the Godhead enjoys and fully engage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s. Jesus has joy and enthusiasm in His love for the Father. He is moved in loving the Father and in being loved by the Father. His love is never mechanical. He is not disinterested or bored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This is a picture of how Jesus loves us. He is never bored with us.  
     신회의 각 인격은 다른 분들과의 관계를 즐기고 온전히 참여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데 감동을 받는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기계적이지 않다. 그분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무관심하거나 지루해 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지루해 하지 않으신다.
  6. The union in the Godhead reveals the nature, quality, and intensity of Their love and relationships. These relationships are the ***model***and ***source*** whereby we relate to God and each other. Their relationships give us a picture of what perfect love is and of how God relates to God, how God relates to each believer, and how believers are to relate to Him and to one another.   
     신회의 연합은 그분들의 사랑과 관계의 본질, 질, 강도가 어떤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델**이자 **근원**이다. 각 신격의 관계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각 믿는 자와 어떻게 관계하는지, 믿는 자가 어떻게 그분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제공한다.
  7. Our ability to receive God’s love and to love God and others is anchored in the reality of how the Trinity relates. Thus, it is practical to grow in understanding of the Trinity—it is the ***model*** of how God’s love functions, and it is the ***source*** that inspires and tenderizes us to love. We lose much by neglecting to understand even a portion of how the Godhead relates to one another.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은 삼위일체의 관계의 실체에 기초한다. 따라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에 자라가는 것은 실용적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모델**이며 우리가 사랑하도록 영감을 주고 부드럽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격이 서로 어떻게 관련하시는 지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많은 것을 잃는다.
  8. The three persons are each fully involved with every work of God—the creation, the incarnation, healing miracles, the atonement, the resurrection (Jn. 10:18), etc. Each functions in a diverse way in participating in each work of God. Every miracle that Jesus did—the Father and the Spirit were fully engaged with joy and involved with Him in it. Therefore, we know that the Father is deeply involved in our works because He loves us in a way similarly to how He loves Jesus.   
     창조, 성 육신, 병 고치는 기적, 속죄, 부활(요 10:18) 등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세 위격이 각각 온전히 참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각 사역에 각각의 위격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하신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에 아버지와 성령님은 기쁨으로 완전히 참여하셨고 그 기적에 관여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안다.

38“…believe the works, that you may know…the Father is in Me, and I in Him.” (Jn. 10:38)  
38…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요 10:38)

18“I lay it [His life] down of Myself…and I have power to take it again.” (Jn. 10:18)  
18…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요 10:18)

* 1. Jesus’ words in John 14 must have shocked the disciples—He said,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14:10), then to the disciples He said,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14:20). When Jesus said, “I am in the Father,” He was saying, “My thoughts, feelings, values, words, and actions deeply move My Father’s heart, and what He thinks and says deeply moves Me.”   
     요1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14:10) 라고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14:20) 라고 말씀 하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고 말씀하신 것은 “내 생각과 느낌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이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고 아버지의 생각과 말씀은 나를 깊이 감동시킨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10“Do you not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20At that day you will know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in Me, and I in you.” (Jn. 14:10, 20)  
10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20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14:10, 20)

* + 1. ***You in Me***:The redeemed are “in” Jesus—our words and thoughts are in His heart, and they move Him. The very fact that He answers our prayers and gives us eternal rewards related to our words and deeds assures us that they move His heart and that He delights in them.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구속 받은 자는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고, 그분에게 감동을 준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 영원한 보상을 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확신시켜 주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린다.
    2. ***I in you***:Jesus is “in” a believer. He abides in us by His Spirit dwelling in our spirit and   
       by releasing the Spirit’s activity in our heart and giving us living understanding of His Word.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분의 영의 활동을 풀어 주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이해를 주신다.
  1. In John 14:20, Jesus made a dramatic and “extreme” declaration inviting His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very relational union that He enjoyed with His Father as a Man.   
     요14:20절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신의 아버지와 즐겼던 바로 그 관계적 연합에 참여하도록 당신의 백성을 초대하는 드라마틱하고 “극단적인” 선언을 하셨다.
  2. Jesus told His disciples that they would be closer to Him by the indwelling Spirit after He left (Jn. 16:7). Imagine if your friend told you he was leaving, but he would put his spirit in your mind so that you could communicate together at a deeper level (than when talking face to face) and that he would never leave you. It is more extreme that humans can relate to the Genesis 1 God in that way.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떠나신 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분에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 16:7). 상상해 보라,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떠난다고 말하면서 당신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할 때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함께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그의 영을 당신의 생각 속에 넣어 두어 그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더 극단적이다.

7“…It is to your advantage that I go away…if I depart, I will send Him to you.” (Jn. 16:7)   
7…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 16:7)

* 1. Christ is “in” us, and we are “in” Him—we are not “in” another human being, and no one is “in” you in such a dynamic way that they know your unspoken thoughts and their unspoken thoughts are known by you. No one knows you like this, and you cannot know any others like this.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 우리는 다른 인간 "안에" 있지 않으며 아무도 말하지 않은 당신의 생각을 알며, 당신도 말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만큼 역동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안에" 있지 않다. 아무도 당신을 이렇게 알 수 없으며, 당신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알 수 없다.
  2. ***Mutual indwelling***: The truths related to the “mutual indwelling” of God and His people (Jn. 14:10-11, 20; 15:4-7) has been referred by theologians using the Greek term ***perichoresis*** which speaks of the mutual indwelling— Jesus is “in” us, and we are “in” Him.   
     **상호 내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상호 내주” 와 관련된 진리 (요 14:10-11, 20; 15:4-7)는 신학자들에 의해 상호 내주 라는 헬라어 **페리코레시스**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언급되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
  3. This reciprocal indwelling between Jesus and His disciples describes the closest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them yet without implying equality of any kind with Jesus.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 상호 내주는 예수님과 가능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설명 하지만, 이는 예수님과 어떤 종류의 동등함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4. Jesus ***sees*** the Father (Jn. 1:18; 3:11, 32; 5:19, 29, 37; 6:46; 8:38), ***hears*** the Father (Jn. 3:32, 34; 5:30, 37; 7:17; 12:49-50; 14, 10), and ***does*** what the Father does (Jn. 5:19-20; 6:38).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시고**(요 1:18; 3:11, 32; 5:19, 29, 37; 6:46; 8:38),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며**(요 3:32, 34, 5: 30, 37; 7:17; 12:49-50; 14, 10),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신다**(요 5:19-20; 6:38).
     1. The Father ***directs*** the Son, and the Son ***obeys*** the Father. The Spirit is obedient to the Father and Son. The Son and Spirit are equal in deity to the Father but are subordinate in their roles. There are no differences in the essential nature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아버지는 아들을 **지도하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한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순종하신다. 아들과 성령님은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지만 그들의 역할에 있어서는 종속적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2. The Spirit ***speaks*** what He hears, and He imparts the things of Jesus and the Father to the believer (Jn. 16:13-15; 1 Cor. 2:10-13).   
        성령님은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아버지의 것을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신다 (요 16:13-15, 고전 2:10-13).
     3. The Father ***testifies*** of Jesus (Jn 5:36-37; 8:17), and Jesus ***testifies*** of the Father (Jn. 3:11, 32; 17:6, 26; 18:37) as the Spirit ***testifies*** of both the Father and Jesus (Jn. 15:26; Gal 4:6).   
        아버지는 예수님을 **증거하시고**(요 5:36-37, 8:17),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시며** (요 3:11, 32, 17:6, 26, 18:37),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 두 분을 **증거하신다**(요 15:26; 갈 4:6).
  5. God created us in three parts: spirit, soul and body. Our soul includes our mind and emotions. The core reality of the new birth is that the Spirit lives in our spirit. Thus, the very uncreated life of God dwells in our spirit. Our spirit is joined to the Holy Spirit, and thus we are one spirit with God.   
     하나님은 우리를 영, 혼, 육의 세 부분으로 창조하셨다. 우리의 혼에는 마음과 감정이 포함된다. 거듭남의 실체의 핵심은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사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우리 영 안에 거한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연합함으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다.

23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preserved blameless… (1 Thes. 5:23)   
23…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17But he who is joined to the Lord is one spirit with Him. (1 Cor. 6:17)  
17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전 6:17)

* 1. The Spirit flows from our heart. The NAS accurately translates this as our “innermost man.”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NAS[새 미국 표준 역]는 이것을 우리의 "속 사람"으로 정확하게 번역했다.

38He who believes in Me…out of his heart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Jn. 7:38, NKJ)   
38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8 NKJ역)

38He who believes…from his innermost being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Jn. 7:38 NAS)  
38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의 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8 NAS 역)

* 1. John 14:10 and 14:20 are “bookends” to the transforming union described in 14:10-20.  
     요14:10과 14:20은 14:10-20에 쓰여진 변화하는 연합에 대한 “북엔드” 이다.

1. our thoughts, words, and deeds—in agreement with Jesus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예수님과 일치함
   1. The Spirit desires to help us grow in union with God that includes the same 5 elements of unity that the Father and Jesus enjoy—their ***mind***, ***heart***(feelings), ***will***(values), ***words***, and ***works***(actions).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즐기시는 하나됨, 즉 **생각**, **마음**(감정), **뜻**(가치), **말**, **행함**(행동)을 포함하는 다섯 가지 요소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장하도록 돕기를 원하신다.
   2. We are intentionally to seek to think, feel, value, speak, and act in ways that are in agreement with God, knowing that this deeply moves the Father’s heart. Over time, what He thinks, feels, says, and does will progressively fill our hearts in a way that powerfully moves us.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의도적으로 추구하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점진적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져 우리를 강력하게 감동시키게 될 것이다.
   3. Thoughts and words are two of the main elements in the union between Father and Son and between Jesus and the body of Christ. We grow spiritually as we exert effort to bring our thoughts and words into unity with God’s—this is foundational to “abiding in Christ” (Jn. 15:4-7).   
      생각과 말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 사이에 연합하는데 주요한 두 가지요소이다. 우리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요 15:4-7) 기초이다.

7If…My words abide in you, you will ask what you desire, and it shall be done for you. (Jn. 15:7)  
7 …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15:7)

* 1. The fruit of this union with God is *miracles* (14:12), *answered prayers* (14:13-14), *obedient love* (14:15), and enjoying *God’s manifest presence* (14:21-24) by the power of the Spirit (14:16-17).  
     하나님과의 이 연합의 열매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14:16-17) **기적**(14:12), **기도 응답**(14:13-14), **순종하는 사랑**(14:15),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것(14:21-24)이다.

11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or else believe Me for the sake of the works themselves…12he who believes in Me, the works that I do he will do also; and greater works than these he will do…13And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I will d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14If you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Jn. 14:11-14)   
11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12…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13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14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 14:11-14)

* + 1. Jesus asked if they believed that He had this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the transcendent God. He added that if they could not believe that a human could have a relationship like this with God that they should see the proof of it by the works or miracles that He did. The miracles proved that the Father’s words filled Jesus’ heart and that His words moved the Father.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이런 질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믿느냐고 물으셨다. 인간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기적들을 그 증거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이셨다. 이 기적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를 감동시켰다는 것을 증명한다.
    2. The Father’s words filled Jesus’ heart so, when He spoke, it released the Father’s works. There is a deep correlation between the words of the Son filling the Father’s heart and the Father’s works being released into the natural realm. Thus, we value filling our heart with God’s words via prayerful meditation and speaking our words into His heart via intercession.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일을 풀어내셨다.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신 아들의 말씀과 아버지의 역사가 자연계에 풀리는 것 사이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명상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말들을 아버지의 마음에 말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1. Thoughts and words in agreement with the Spirit bind people to God and each other in His grace.   
     성령님께 동의하는 생각과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서로에게 결속시킨다.
  2. David understood the power of our thoughts and words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Ps. 19:14).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의 힘을 이해했다(시 19:14).

14“Let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acceptable in Your sight…”  
(Ps. 19:14)   
14…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 19:14)

* 1. We spend countless hours over our lifetime talking to people in our heads, arguing, making plans, showing love to people who are not physically present with us. But there is One who actually is “there” though the Spirit who will communicate with us and tenderize our heart as we come to Him.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의 머릿속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계획을 세우고, 물리적으로 우리 곁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려고 셀 수 없는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실제로 “거기” 에 계시며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실 분이 계신다.
  2. We are all called to experience union and active intimacy with God’s heart. Abiding in Christ is not passive but active (15:4-7). Our goal is to cultivate an on-going heart dialogue with our Beloved. It is an awesome privilege that is within the reach of all—even the weakest or newest believer.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고 능동적인 친밀함을 경험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다(15:4-7).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사랑하는 분과 지속적인 마음의 대화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연약한 신자나 가장 새로운 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닿는 곳에 있는 놀라운 특권이다.